



중동 지정학 우려로 하락

트럼프 대통령,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정 임박 언급
코스피, 코스닥 장중 매도 사이드카 발동

주요 지표 일간 변동

KOSPI	KOSDAQ	KOSPI200
6,690.62pt (-5.72%)	748.22pt (-5.32%)	1,055.58pt (-6.28%)
달러-원 환율	韓 10년물 국채 금리	S&P500 선물
1,465.20 원 (-9.0 원)	4.4320% (+4bp)	7,453.50pt (+0.11%)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주요 수급 동향

	KOSPI	KOSDAQ	KOSPI200 선물
개인	+51,783 억	+4,888 억	+914 억
외국인	-32,827 억	-1,335 억	-759 억
기관	-19,513 억	-3,587 억	-36 억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KEY DRIVER

- 금일 국내 증시는 중동의 지정학 우려가 재부각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23일(현지 시간)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상대로 “어느 때보다 큰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”고 밝혔습니다. 장중 한때 브랜트유 선물은 100달러를 돌파했고, 美 국채 10년물은 4.7%를 상회했습니다.
- 주말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. 코스피, 코스닥 공히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. KOSPI는 5.72%, KOSDAQ은 5.32% 하락 마감했습니다. KOSPI 거래대금은 약 30.9조원, KOSDAQ은 약 5.1조원을 기록했습니다(KRX 기준).
- 외국인은 KOSPI에서 약 3.3조원 순매도했습니다. 외국인 순매도의 대부분은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었습니다. 기관도 KOSPI에서 약 2조원을 순매도했습니다. 기관 역시 반도체 중심의 전기/전자 업종을 집중 매도했습니다. 금일 삼성전자는 7.59%, SK하이닉스는 8.34% 하락했습니다.
-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, KOSPI에서는 제약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분기 실적 호조와 단기 낙폭 과대 매력에 외국인·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10% 넘게 급등했습니다.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에 자동차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. KOSDAQ은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.
- 주요 종목 중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(+10.08%), 메리츠금융지주(+5.75%)가 올랐고, 레인보우로보틱스(-17.62%), 기아(-12.88%), SK스퀘어(-9.17%)가 내렸습니다.

Compliance Note

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